

마태복음 1:7-8의 Ἀσάφ에 대한 주해와 번역 제안

강세현*

1. 서론

NTG²⁸ 마태복음 1:7-8 본문에는 아삽(Ἀσάφ)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아사(Ἀσα)를 지지하는 이문도 존재하는데, NTG²⁸은 Ἀσάφ을 원문으로 본다. Ἀσάφ과 Ἀσα 중에서 무엇을 원문으로 볼 수 있을까? 먼저 이 단어에 대한 외증을 살펴보면, Ἀσάφ이 Ἀσα보다 외증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¹⁾ 왜냐하면 Ἀσάφ을 고대 알렉산드리아 사본인 시내산·바티칸 사본(Ⲙ B)과 서방 사본인 고대 라틴어 사본들(it)이 지지하기 때문이다.

- (1) Ἀσάφ Ⲕ^{lvid} Ⲙ B C f^{1.13} 700. l 844. l 2211 it sy^{hmg} co
(2) Ἀσα K L W Γ Δ 33. 565. 579. 892. 1241. 1424 m (a) f
ff¹ vg sy

내증으로도 Ἀσάφ이 원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Ἀσάφ을 원문으로 가정하면, Ἀσα의 이문이 설명된다. 필사자가 Ἀσάφ에서 역사서의 진술에 맞는 Ἀσα로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서는 아비야 다음으로 아사, 아사 다음으로 여호사밧이 등극했다고 진술하기 때문에(왕상 15:8;

* 충신대학교 신약학 석사 과정. shehyngood@naver.com.

1) NTG²⁸ 외증은 다음 책을 참고했다. E. Nestle and E. Nestle, *Nestle-Aland: NTG Apparatus Criticus*, eds., B. Aland et al., 28. revidierte Auflage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22:41; 대상 3:10), 마태복음 1:7-8에서도 아비아, 아사(Ἀσα), 여호사밧으로 족보가 이어지도록 수정했을 수 있다.

하지만 Ἀσα를 원문으로 가정하면, Ἀσάφ의 이문이 나온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 필사자의 단순한 실수로 Ἀσα 대신에 Ἀσάφ을 기록했을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1:7-8은 마태복음 중반이나 후반부가 아니라, 서두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필사자가 서두에서부터 실수할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7-8에서 필사자의 실수로 나올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이문은 중복의 생략 현상으로 인한 이문인데, 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²⁾ 그러면 필사자가 의도적으로 역사서의 진술과 맞지 않는 Ἀσάφ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정리하면 Ἀσάφ을 원문으로 가정할 때는 Ἀσα의 이문이 설명되지만, Ἀσα를 원문으로 볼 때는 Ἀσάφ의 이문을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Ἀσάφ이 원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Ἀσάφ을 원문으로 논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만일 마태가 역사서 진술에 맞지 않는 Ἀσάφ을 기록했다면, 여기에는 마태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분명하다. 주해를 통해 이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Ἀσάφ을 원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본 고는 마태복음 1:7-8을 포함하는 ‘예수의 족보’(1:1-17)에 대한 본문을 구조·문법적 분석과 단어 연구, 제2성전기 유대교 문헌과의 비교를 통해 주해할 것이다. 이어서 마태복음 13:35에서 아삽(Ἀσάφ)의 시편 78:2를 사용한 것을 근거로, 마태복음 1:7-8의 Ἀσάφ 사용 또한 시편 78편의 주제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설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고는 마태복음 1:7-8에서 Ἀσάφ을 기록한 목적이 ‘언약에 반역하는 죄인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조함을 통해, 궁극적으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임을 주장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고찰

마태복음 1:7-8에서 Ἀσα 대신 Ἀσάφ이 나오는 이유를 연구한 학술지는 찾기 어려웠다. 대신 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주석들은 일부 있었다.

2) 중복의 생략 현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문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1:7 끝의 Ἀσάφ을 쓰고, 1:8 앞의 Ἀσάφ을 생략하고 δε로 넘어가는 경우와 둘째, 1:7 끝의 Ἀσα에서 1:8의 Ἀσα를 생략하고 δε로 넘어가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이문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 살펴볼 6개의 주석은 모두 마태복음 1:7-8의 원문을 Ἀσα가 아니라 Ἀσάφ으로 본다. 이 주석들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1:7-8의 Ἀσάφ 사용을 역사적 인물인 ‘아삽’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크레이그 키너(C. S. Keener)는 마태가 아사보다 더 의로운 인물인 아삽으로 의도적으로 수정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³⁾ 존 놀랜드(J. Nolland)는 LXX에서는 아사를 한결같이 Ἀσα로 기술함을 언급하면서, 왜 마태는 1:7-8에서 아삽을 기록했을지 질문한다.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사를 깨우치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것 같다”라고 대답한다.⁴⁾

여기서 마태의 1:7-8에서의 Ἀσάφ 사용이 ‘아삽’과 연결된 점을 말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적절하다. 첫째, 마태의 Ἀσάφ 사용에 마태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긍정한 점이고, 둘째, 구체적으로 역사적 인물인 ‘아삽’과 연관해서 해석하는 점이다. 하지만 ‘아삽’과 어떤 점에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근거도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1:7-8의 Ἀσάφ 사용을 마태복음 13:35에서 아삽(Ἀσάφ)의 시편 78:2를 사용한 것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데이비스와 엘리슨(W. D. Davies & D. C. Allison)은 “아마도 마태는 1:7-8에서 Ἀσάφ을 쓰면서, 마태복음의 족보(1:1-17)와 시편 78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연결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다.⁵⁾ 그랜트 오스본(G. R. Osborne)은 1:7-8의 Ἀσάφ에 족보와 아삽의 시편의 내용을 연결하려는 마태의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⁶⁾ 강대훈은 마태가 13:35에서 시편 78:2를 인용한 것을 볼 때, 마태는 아삽을 선지자로 이해했음을 말한다. 즉, 그는 “마태가 1:7-8에서 Ἀσάφ을 쓴 것을 통해, 예수가 아삽의 시편이 말하는 선지자적인 소망을 성취하는 분임을 보여 주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⁷⁾ 신현우는 1:7-8의 Ἀσάφ을 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 표현을 통해 아삽의 시편(시 50; 73-83편)을 연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여기서 마태가 아사보다 아삽을 선호했을 수도 있음을 말한다.⁸⁾

여기서 마태의 1:7-8에서의 Ἀσάφ 사용을 좁게는 시편 78편, 넓게는 아삽

3) C. S. Keener,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09), 76.

4) J. Nolland,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05), 79.

5) W. D. Davies and D. C. Alliso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ICC (London;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4), 175.

6) G. R. Osborne, *Matthew*, Zondervan Exegetical Commentary Series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2009), 65.

7) 강대훈, 『마태복음 주석(상)』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241.

8) 신현우, 『마태복음 1:1-13:52』, KECNT (서울: 감은사, 2022), 53-54.

의 시편들(시 50; 73-83편)과 연관해서 해석하려는 시도는 적절한 해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35에서 시편 78:2를 인용하는 용례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역사적 인물인 ‘아삽’과 연결해서 해석하려는 시도보다, 훨씬 구체적인 장점도 있다. 아삽의 시편들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마태복음 1:7-8을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 주석들에서 아삽의 시편들을 통해 마태복음 1:7-8을 깊이 있게 주해하는 작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3. 연구 방법

본고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마태가 Ἀσάφ을 기록한 의도를 파악해 볼 것이다. 첫째, 마태복음 1:7-8을 포함하는 ‘예수의 족보’(1:1-17)에 대한 중심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본문을 구조·문법·단어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주제가 유대 문헌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고, 이 내용과 마태복음 1:1-17을 비교해서 이해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1:7-8을 포함하는 1:1-17이 말하는 중심 주제가 ‘언약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궁극적으로 아브라함·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둘째, 마태복음 1:7-8의 Ἀσάφ 사용과 시편 78편의 연관성을 직접적·간접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직접적 연관성 측면이다. 마태는 1:7-8에서 Ἀσάφ을 기록하고, 13:35에서 Ἀσάφ의 시편 78편을 인용한다. 두 본문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단서는 1:7-8의 Ἀσάφ이라는 단어뿐이다.⁹⁾ 하지만 만약 1:7-8을 포함하는 1:1-17과 시편 78편 사이의 연관성이 분명해진다면, 충분히 1:7-8의 Ἀσάφ이라는 이름을 통해 시편 78편을 떠올리게 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¹⁰⁾ 다음으로 간접적 연관성 측면이다. 만일 1:7-8에서 Ἀσάφ

9) 이런 점에서 13:35의 시 78편 인용과의 비교를 직접적인 측면으로 분류하기 어렵기도 하다. 하지만 1:7-8의 Ἀσάφ을 해석할 만한 단서를 1:1-17 안에서 찾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13:35의 시 78편 인용과의 비교가 가장 직접적인 측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0) 신인철은 “마태복음 1:1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가 마태복음 표제의 역할을 하고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신인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해”, 『복음과 실천』 68 (2021), 131-153; 그런데 1:2-17은 1:1에 대한 주제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본문이다. 즉, 1:1이 표제로 마태복음 전체를 아우른다면, 1:1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에 해당하는 1:2-17 내용도 마태복음 전체와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점을 볼 때, 1:7-8의 Ἀσάφ과 13:35에서 Ἀσάφ의 시 78편을 사용하는 것 사이에 연관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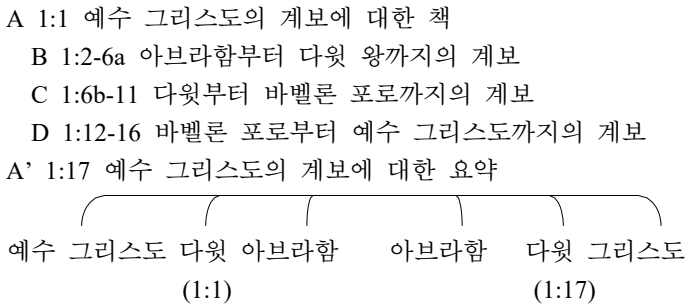
을 통해 시편 78편을 사용한 것이 설명된다면, 마태복음 외에 신약성서와 미쉬나(Mishnah)의 시편 78편에 대한 용례와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만일 다른 문헌에서 시편 78편을 사용한 것과 1:7-8의 시편 78편 사용 방식이 유사하다면, 이를 통해 마태가 Ἀσάφ을 통해 시편 78편을 염두에 두었을 것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다.

4. 마태복음 1:7-8의 Ἀσάφ에 대한 주해

4.1. 마태복음 1:1-17의 중심 주제 분석

4.1.1. 구조, 문법, 단어적 분석

먼저 마태복음 1:1-17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서, 12-16에서 문법적인 분석을 함께 시도하려고 한다. 1:1-17은 1:1과 1:17이 1:2-16을 아우르는 샌드위치 구조이다.¹¹⁾ 아래는 1:1-17의 구조를 정리한 내용이다.



이처럼 1:1과 1:17은 1:2-16을 감싸면서, 동시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1:1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순서로 나오고, 1:17은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 순서로 나온다. 즉, 이 족보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측면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무엇을 의미할까? 필자는 ‘이

11) 1:1은 1:1-17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가리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마태복음 책 전체의 제목에 해당하기도 한다. 책 전체의 제목에 대한 증거는 1:1에 정관사와 동사가 부재한 것, 유대교 문헌에서 제목이 첫 문장에 등장하는 용례(나 1:1; Tob 1:1; Bar 1:1; Testament of Job 1:1; 2Es 1:1)를 들 수 있다. J. Nolland, *The Gospel of Matthew*, 70; 강대훈, 『마태복음 주석(상)』, 224.

표현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한다. 즉,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즉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을 성취한 분이심을 강조하는 것이다.

언약 성취의 내용이 1:1-17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1:2-6a, 6b-11, 12-16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1:2-6a(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의 계보)를 보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수직적 족보 형식에서, 그 시작점을 아브라함으로 정했다. 그것은 예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한 분이심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¹²⁾ 마태는 1:2-6a에서 '아버지 + ἐγέννησεν + 아들 형식'을 깨뜨리면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와 관련된 강조점들을 보여 준다. 첫째,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τὸν Ἰούδαν καὶ τοὺς ἀδελφούς αὐτοῦ)을 낳았다'라는 표현이다(1:2). 마태는 왜 유다 한 개인을 쓰지 않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일까?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처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둘째,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에 포함된 것이다. 1:1-6a에 나오는 이방 여인은 다말(1:3), 라합, 룻(1:5)이다. 이는 창세기 12:1-3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취를 암시한다.

다음으로 1:6b-11(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계보)을 보면, 마태는 1:6b-11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속적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측면을 강조한다. 이 단락에서도 마태는 '아버지 + ἐγέννησεν + 아들 형식'을 깨뜨리면서, 다윗 언약의 성취와 관련된 강조점들을 보여 준다. 첫째, 다윗 언약과 다윗의 실패를 동시에 설명한다(1:6). 마태는 1:6a에서 다윗을 왕(τὸν βασιλέα)으로 말한다. 이는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 다윗 언약을 암시한다(삼하 7:4-17). 그런데 이어서 바로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를 소개한다. 바로 우리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이다. 마태는 우리아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기록하면서, 다윗의 범죄를 드러낸다(1:6b). 하지만 족보는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신실히 지켜 가시는 것을 보여 준다. 둘째,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τὸν Ἰεχονίαν καὶ τοὺς ἀδελφούς αὐτοῦ)을 낳았다'라

12) 창 12:1-3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워 가신다는 약속이다. 마 1:1-17에서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는 근거는 39번 나오는 '아버지 + ἐγέννησεν + 아들 형식'이다(마 1:2[3번], 3[3번], 4[3번], 5[3번], 6[2번], 7[3번], 8[3번], 9[3번], 10[3번], 11, 12[2번], 13[3번], 14[3번], 15[3번], 16). 여기서 ἐγέννησεν은 부정과거형으로 동사 상의 측면(Verbal Aspect)에서 볼 때, 1:1-17 본문의 전반적인 배경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마 1:1-17은 창 12:1-3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취된 것과, 궁극적으로 예수에게서 이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보여 준다.

는 표현이다(1:11). 마태는 왜 여고냐라고 쓰지 않고,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일까?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여고냐와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여고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심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왕하 25:27-30). 이 회복은 여고냐 개인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마태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1:12-16(바벨론 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을 보면, 마태는 1:12-16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속적인 죄악과 바벨론 포로 이후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아브라함·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강조한다. 이 단락에서 마태는 1:16에서 ‘아버지 + ἐγέννησεν + 아들 형식’을 깨뜨리면서, 아브라함·다윗 언약이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보여 준다.

여기서 1:16을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자. ἐγεννήθη는 1:16에 1번 나온다. 여기서 마태는 ‘아버지 + ἐγέννησεν + 아들 구조’를 깨뜨린다. 수동태에서 현재형은 문법적 주어의 위치에 있는 동작의 수혜자에게 주어지는데, 여기서는 Ἰησοῦς가 강조되고 있다.¹³⁾ 그러면 39번 나오는 ‘아버지 + ἐγέννησεν + 아들’이라는 문법적 구조를 이탈하면서까지, Ἰησοῦς를 강조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출생의 기원이 인간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기원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의 출생에 대한 행위자가 나오지 않고, 그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셨음을 설명하는 것은, 예수의 출생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자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신적 수동태를 보여 준다.¹⁴⁾

구조·문법적 분석을 정리하면, 1:1-17은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1:1-17에 나오는 ‘낳다’(γεννάω)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자. 마태는 γεννάω를 44번 사용한다(마 1:2[3번], 3[3번], 4[3번], 5[3번], 6[2번], 7[3번], 8[3번], 9[3번], 10[3번], 11, 12[2번], 13[3번], 14[3번], 15[3번], 16[2번], 20; 2:1; 19:12; 26:24).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 예수에게까지 이어지는 족보 안에서 사용된 경우이다(마 1:2[3번], 3[3번], 4[3번], 5[3번], 6[2번], 7[3번], 8[3번], 9[3번], 10[3번],

13) 박윤만, “신약성서 헬라어의 현재형 표지들”, 『신약연구』 9 (2010), 328-329.

14) 신적 수동태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하라.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Grand Rapids: Zondervan, 1996), 437-438.

11, 12[2번], 13[3번], 14[3번], 15[3번], 16상). 둘째, 예수의 출생과 관련되어 사용된 경우이다(마 1:16하, 20; 2:1). 셋째, 일반적인 출생을 뜻하는 경우이다(마 19:12; 26:24).

이 중 첫째·둘째는(총 44번 중에 42번에 해당)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관련된다. 먼저, 마태복음 1:1-16에서 γεννάω는 아브라함·다윗 언약과 연관된다. 1:2-16상반까지의 출생들(ἐγεννήσεν)은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다윗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1:16하반에서 예수의 출생(ἐγεννήθη)은 두 언약의 궁극적 성취를 보여 준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1:20의 출생(γεννηθὲν)은 이사야 7:14의 약속과 관련된다. 마태는 1:20에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하면서, 1:22-23에서 이것이 이사야 7:14의 약속에 대한 성취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1의 출생(γεννηθέντος)은 미가 5:2의 약속과 연결된다. 마태는 2:1에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말하면서, 2:5-6에서 이것이 미가 5:2의 약속에 대한 성취임을 보여 준다.

정리하면, 마태는 γεννάω를 일반적인 출생의 의미로 2번 사용하지만(마 19:12; 26:24), 예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1-2장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와 관련해서 γεννάω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구조·문법·단어 분석을 정리하면, 1:1-17은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말해 준다.

4.1.2. 유대 문헌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리고 마태는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설명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하고자 한 것일까?

먼저 당시 유대인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이해를, Sirach 44:18-23; 1 Maccabees 2:49-70; Psalms of Solomon 9:9-11; 18:3-5를 통해 살펴보자.¹⁵⁾ Sirach 44:18-23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온 열방’의 조상이고 축복의 통로임을 말한다. 이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창 12:1-3; 18:18; 22:18).

15) 본 고는 외경 본문은 『공동』을, 위경 본문은 다음 책을 참고했다. J. H. Charlesworth,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vol. 1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3); J. H. Charlesworth,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and the New Testament: Expansions of the "Old Testament" and Legends, Wisdom, and Philosophical Literature, Prayers, Psalms and Odes, Fragments of Lost Judeo-Hellenistic Works*, vol. 2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5).

이어서 1 Maccabees 2:49-70에서 마따디아는 유언을 남기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 중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소개한다(2:52). 또 마따디아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면서(2:50, 53, 55, 58, 64, 67, 68), 특별히 아들들에게 율법을 열심히 지킬 것을 명령한다(2:50, 64, 68). 즉, 여기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임을 알 수 있다.

Psalms of Solomon 9:9-11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든 민족 위에 선택 받았고(9:9),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며(9:10), 이러한 선택과 언약은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말한다(9:9, 11). 또 Psalms of Solomon 18:3-5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18:3), 메시아가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한다(18:5). 정리하면, Psalms of Solomon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있고,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풀 것을 말한다.

Sirach 44:18-23; 1 Maccabees 2:49-70; Psalms of Solomon 9:9-11; 18:3-5를 정리해 보면, 첫째, 일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과 열방에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 언약을 연결해서 이해한 것 같다(Sir 44:18-23). 둘째, 일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메시아를 연관해서 이해한 것 같다(Pss 9:9-11; 18:3-5). 셋째, 일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연결해서 이해한 것 같다(1Ma 2:49-70).

정리하면 마태는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선포를 통해, 예수께서 ‘열방에 복을 주신다’라는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시고,¹⁶⁾ 참 메시아이심을 강조한다. 또한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을 비판하면서(마 1:1-17; 3:7-12; 5:20; 6:2, 5; 7:1-5, 15-23; 8:12; 9:11, 34; 11:16-19, 20-24; 12:1-2, 9-14, 22-37, 38-45; 13:53-58; 15:1-20; 16:1-4; 19:3-12; 21:12-17, 23-32, 33-46; 22:15-22, 23-33, 34-40; 23:1-36), 바로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가르치시는(마태복음에 나오는 다섯 가지 강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한다(마 5:17-20; 7:24-27; 12:46-50; 13:51-52; 25:31-46; 28:20).

다음으로 다윗의 자손에 대해 살펴보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유대적 배경을 강하게 갖고 있고(4QIsaa 8-10; 4Q252 v 3-4; 4Q285 5//11Q14 1 i; 참조, 삼상 17:12; 마 1:1; 12:15-23; 요 1:49; 롬 1:2-4; 계 5:5; Pss 17:21-37; T.

16)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의 범주적인 면에서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강대훈, 『마태복음 주석(상)』, 229-230;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안에는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선교 신학적 관점이 함의되어 있다. 신인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해”, 139-146.

Levi 18:7),¹⁷⁾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다 (마 1:20; 9:27; 12:23; 15:22; 20:30, 31; 21:9, 15; 22:42; 막 10:48; 12:35; 눅 18:38, 39). 콤란 문헌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만, 본 장에서는 콤란 문헌에 대한 내용은 지면상의 한계로 생략하고, Sirach 45:23-26; 47:1-11; 48:15-16과 1 Maccabees 2:57; Psalms of Solomon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Sirach 45:23-26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45:25에 “주님께서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 다윗과 맺은 계약은 아들들에게만 대대로 왕권을 계승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48:15-16은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범죄로 나라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소수의 백성만이 남아서 다윗 가문의 통치자와 함께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했음을 말한다. 또한 1 Maccabees 2:57은 마따디아의 유언에 대한 내용 중에도, “다윗은 그의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영원한 왕권을 차지했다”라고 언급한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할지라도, 다윗에게 주어진 왕권에 대한 약속은 계속해서 유효함을 말해 준다.

그런데 Sirach 47:1-11은 다윗의 자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 준다. 이 본문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말하면서, 다윗이 이방 민족을 힘으로 무찌르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다윗이 골리앗과 사면의 적들과 원수인 블레셋을 물리치는 모습이 나온다(47:4-7). 즉, 집회서에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은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을 무찌르는 존재이다.

다음으로 Psalms of Solomon 17장을 살펴보자. 17:4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 내용이 나온다. 17:5-6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다윗의 왕권이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말하면서, 다윗의 자손 즉 왕이신 메시아께서 다시 오셔서 (17:21, 32), 이방 민족을 쫓아내고 심판하시고(22-25, 29, 36, 43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날을 고대하며 기도한다(26-28, 30-35, 40, 41-46절).

이 중 17:24의 “to destroy the unlawful nations with the word of his mouth”에서 그의 입의 말씀(the word of his mouth)은 LXX 이사야 11:4를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LXX는 ‘그의 입의 말씀’, 히브리어 본문은 ‘그의 입의 막대기’로 나오기 때문이다.¹⁸⁾ 정리하면, Psalms of Solomon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자

17) 이민규, “다윗의 자손에 관한 다양한 이해: 구약, 솔로몬의 시편, 콤란, 마태복음 비교를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8 (2024), 76; 강대훈, “제2성전기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 「신약연구」 14 (2015), 323; J. J. Collins, *The Scepter and the Star: Messianism in Light of the Dead Sea Scrolls* (Grand Rapids: Eerdmans, 2010), 52-78.

18) J. J. Collins, *The Scepter and the Star*, 58.

손은 이사야 11:1-4와 연관되어 있고, 그분의 입의 말씀으로 이방 나라들을 무찌르는, 즉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 준다.¹⁹⁾

Sirach 45:23-26; 47:1-11; 48:15-16과 1 Maccabees 2:57; Psalms of Solomon 17장을 정리해 보면, 유대인들은 대체로 ‘다윗의 자손’을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 나라들을 무찌르는, 즉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메시아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마태는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선포를 통해, 이방 나라를 무찌르는 다윗의 자손을 기대한 유대인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하고자 한 것일까?

마태복음은 당시 유대인들의 이해와는 다르게, 다윗의 자손을 구약 선지서와 유대 문헌과 연결해서, ‘치유하는 목자의 존재’로 묘사한다(마 9:27; 12:23; 15:22; 20:30-31; 겔 34:4, 23-24; 사 61:1; 4Q251; Pss 17:38-40).²⁰⁾ 맹인(9:27),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12:23),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15:22), 맹인 두 사람(20:30-31)을 치유하실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체로 이방 민족을 힘으로 무찌르는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지만, 예수는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치유하는 목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정리하면, 마태는 1:1에서 다윗의 자손을 쓰면서, 예수께서 바로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참 다윗의 자손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동시에 당시 유대인들의 다윗의 자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 것이다. 마태복음 12:23에서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한 질문에 나오는 μήτι는 그들의 부정적 의견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우리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12:24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예수가 결코 다윗의 자손이 아님을 주장한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다윗의 자손을 외치는 장면(21:9)이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환호한 것임을 보여 준다. 결국 그들은 예수가 자신들이 기대한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 죽음으로 넘기게 된다. 이처럼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는 1:1에서 ‘다윗의 자손’을 기록함으로써, ‘예수가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치유하는 목자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미리 암시하는 것이다.²¹⁾

19) Ibid.

20) 강대훈, 『마태복음 주석(상)』, 664-669.

21) 신인철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표현이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질병과 영적 삶에서 회복할 메시아를 암시하는 호칭임을 주장한다. 신인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해”, 149-152.

이처럼 유대 문헌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 마태가 1:1-17에서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메시아’라는 선포를 통해 당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한 내용을 풍성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4.2. 마태복음 1:7-8의 Ἀσάφ 사용과 시편 78편의 연관성 분석

1:7-8은 1:1-17 안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1:1-17의 전체 주제는 1:7-8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면 1:7-8의 Ἀσάφ과 ‘언약에 반역하는 죄인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조함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마태복음 1:7-8의 Ἀσάφ 사용과 시편 78편의 연관성을 직접적·간접적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직접적인 연관성 측면으로, 마태복음 13:35의 시편 78:2 인용과 1:7-8의 시편 78편 사용을 비교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간접적 연관성 측면으로, 마태복음 외에 신약성서와 미쉬나(Mishnah)의 시편 78편에 대한 용례와 유사점을 찾아볼 것이다.

4.2.1. 마태복음 13:35의 시편 78:2 인용과의 비교

13장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비유를 통해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는 내용이다. 그리고 중간인 13:35에서 시편 78:2를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비유로 교훈하신 목적을 밝히신다. 그것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유대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계속해서 깨닫지 못했지만(마 13:13-15), 예수는 천국 비밀을 그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 비유로 가르치셨다(마 13:1-52). 마치 아삼이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비유의 말씀을 전하면서(시 78:1-2),²²⁾ 다윗을 소망하게 한 것처럼 말이다(시 78:70-72). 마

22)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 하늘나라의 비밀을 드러내 주셨지만,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다. 마 13:13-15는 이들의 모습을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했다”라고 묘사한다. 이러한 모습은 마 13:35에서 인용하는 시 78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유사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78:10),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의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다(78:11).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78:17),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다(78:19). 이들은 은혜를 받았어도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고(78:32),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78:37). 아삼은 이처럼 계속해서 반역하는 백성들을 향해,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낸다(78:2)’라고 말하면서,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증거와 법도를 알려주고 있다(78:1-5). 즉, 아삼이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말씀을 알려 주는 것처럼, 예수 또한 당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 드러내고 계신 것이다.

태는 시편 78편의 완악한 이스라엘과 예수께서 활동할 당시의 완악한 이스라엘을 연결하고, 동시에 시편 78편에서 말씀을 전하는 아삽과 천국 비밀을 가르치시는 예수를 연결하면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마태복음 13:35의 시편 78:2 사용 방식과 유사하게, 1:7-8에서 마태는 Ἀσάφ을 쓰면서 시편 78편의 해석적 렌즈를 통해서 마태복음 1:1-17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시편 78편은 계속해서 언약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는 내용이 나온다.²³⁾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1-17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속적인 죄악 속에도 결국 ‘다윗 언약을 예수께서 성취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온다.²⁴⁾

23) 먼저 굴더(M. D. Goulder)는 아삽의 시편들 안에 전반적으로 ‘언약 신학’이 있음을 주장한다. 먼저 아삽은 언약을 직접적으로 언급한다(시 50:5, 16; 74:20; 78:37). 또 아삽은 여러 곳에서 언약을 암시하기도 한다. 언약적 표현인 ‘하나님의 인자하심(יְחִסָּדִים)’을 말하고(시 77:8), 언약적 그림인 ‘양 떼’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양 떼를 돌보시는 것을 말한다(시 74:1; 77:20; 78:52, 70-71; 79:13; 80:1; 83:12). M. D. Goulder, “Asaph’s History of Israe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20 (1995), 74; 다음으로 레이(D. Ray)는 아삽의 시들 중에서 특별히 시 78편을 연구하면서, 두 가지 강조점을 제시한다. 첫 번째 강조점은, 시 78편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대조한다는 점이다. 레이는 시 78편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대조’하는 근거를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시 78편에 히필 동사가 48번 나오는데, 이 중 33개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인 것이다. 또한 이 중 약 17개에서 주어 변환까지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 출 17:5-6에서 주어인 ‘모세’가 시 78:15에서 ‘하나님’으로, 출 34:10에서 주어인 ‘모든 백성’이 시 78:11에서 ‘하나님’으로, 민 20:11에서 주어인 ‘모세’가 시 78:20에서 ‘하나님’으로 등이 있다. 이러한 주어 변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다. 둘째, 신적 행위에서 인간적인 행위자를 격하시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셋째, 기적에서 인간적인 요소는 신성한 활동의 도구로 격하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D. Ray, “Who did What to Whom?: Reassessing God’s Activity in Psalm 78”, *Colloquium* 52 (2020), 65-82; 두 번째 강조점은 시 78편이 다윗을 강조한다는 점이다(78:70-72). 시 78:1-7은 1인칭을 주어로, 78:8-69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3인칭 주어로, 78:70-72는 다윗을 3인칭 주어로 사용한다. 즉, 새로운 신적 권한을 지닌 목자 다윗을 기대하는 것으로 시 78편은 마무리된다. D. Ray, “Who did What to Whom?: Reassessing God’s Activity in Psalm 78”, 82-83.

24) 첫째, 마 1:1-17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속적인 죄악이 드러난다. 먼저 이 족보의 중심인물 중 한 사람인 다윗의 치명적인 범죄를 드러내는데, 바로 ‘우리아’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다(1:6). 다음으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라는 표현을 2번 언급하는 점이다(1:11-12).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죄악으로 받은 징계였다. 이뿐만 아니라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지은 죄가 구약성경 곳곳에 등장한다. 둘째, 마 1:1-17 안에는 시 78편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예수께서 궁극적으로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심이 드러난다. 시 78편 마지막에 다윗이 등장한다(78:70-72). 다윗은 이스라엘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한다(78:72).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언약을 부분적으로 성취해 주신다. 이와 비슷하게 마 1:1-17은 다윗 언약이 예수를 통해 성취됨을 강조한다. 시 78편에서 다윗을 통해 부분적으로 언약이 성취되는 것과는 달리, 마 1:1-17에서 예수를 통한 성취는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보여 준다.

그러면 시편 78편과 마태복음 1:1-17에서 ‘언약에 불신실한 죄인’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중에 무엇이 더욱 강조될까?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방정열은 시편 78편의 결론부인 78:65-72에 거절과 선택 패턴이 나오는 것을 주장한다. 즉, 65-72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는 희망의 메시지”임을 말하는 것이다.²⁵⁾ 이 결론부를 보면, 거절보다 ‘선택’에 더 강조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시편 78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 다윗을 통한 소망으로 시가 끝나기 때문이다(시 78:70-72). 이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1-17 안에도, 언약에 불신실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지만, 결국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의 이야기로 마무리된다(마 1:16-17).

정리하면, 마태는 13:35와 1:7-8에서 시편 78편을 사용하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를 통해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4.2.2. 요한복음 6:31; 7:38과 미쉬나(Mishnah)의 시편 78편 사용과의 비교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신약성서는 시편 78편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스티브 모이스(S. Moyise)와 마르텐 멘켄(M. J. J. Menken)은 *The Psalms in the New Testament*에서, 네 군데에서 시편 78편을 사용한다고 말한다.²⁶⁾ 이 중 마태복음 13:35를 제외하면 세 군데이다. 첫째, 요한복음 6:31에서 시편 78:2를 인용한 경우, 둘째, 요한복음 7:38에서 시편 78:16, 20을 암시한 경우, 셋째, 요한계시록 16:4에서 시편 78:44의 주제 중 하나를 반영해서 사용한 경우이다. 이 중 요한복음 6:31; 7:38이 마태복음의 시편 78편 사용과 유사하므로, 여기서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고 한다.²⁷⁾

첫째, 요한복음 6:31은 우리가 시편 78:2를 인용하면서 예수께 질문하는 본문이다. 모세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광야에서 먹게 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떤 표적을 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말 안에는 “물론 당신은 모세보다는 못합니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같다.²⁸⁾ 또한 이들은 예수께서 생명의 떡임을 설명하시고 난 이후에(요

25) 방정열, “시편 78편의 종말론적 전망: ‘거절과 선택’ 패턴”, 『한국개혁신학』 64 (2019), 28-32.

26) S. Moyise and M. J. J. Menken, *The Psalms in the New Testament* (London;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4), 247-248.

27) 계 16:4에서 시 78:44의 사용은 성도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한다. 반면 요 6:31과 7:38의 시 78편 사용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하는 것을 보여 주면서, 마태의 시 78편 사용과 유사하다.

6:35-40), 예수를 믿지 않고 수군거렸고(6:41-42), 결국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갔다(6:66). 즉, 지금 시편 78:2를 인용함으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모습이 대조된다.

둘째, 요한복음 7:38은 예수께서 “성경에 이름과 같이”라고 말하시면서, 자신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언급하신 내용이다. 여기서 ‘성경’은 어떤 구절을 말하는 것일까? 아마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구절은 에스겔 47장; 스가랴 14:8일 것이다. 하지만 시편 78:16, 20도 출애굽기 17장의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말하고 있어서, 요한복음 7:38에 암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⁹⁾ 그런데 시편 78:16과 78:20 사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나온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했고(78:17),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으며(78:18),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했다(78:19).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위에서 물을 공급하셨고(78:16, 20), 심지어 떡과 고기도 주셨다(78:20). 즉, 78:16, 20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적으로 보여 주는 본문이다. 그리고 요한은 7:38에서 시편 78:16, 20을 암시적으로 사용하면서,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분쟁하며 심지어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과(요 7:43-44) 생수의 강을 주시는 예수를 대조한다.

정리하면, 요한복음 6:31과 7:38의 시편 78편 사용도, 마태복음의 시편 78편 사용처럼,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미쉬나의 시편 78편 사용에 대해 살펴보자. 미쉬나의 시편 78편 사용은 1세기 유대인들의 시편 78편에 대한 해석 경향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미쉬나는 탄나임 시대(약 주전 50~주후 200년)의 랍비들의 구전 전승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미쉬나의 자료들 중 주후 70년 이후의 자료가 많다고 할지라도, 이들 중에는 1세기 초에 통용되던 구전 전승에 기초를 두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복음서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말쑤는 미쉬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막 7:3-4; 마 15:2).³⁰⁾ 따라서 미쉬나의 시편 78편 사용은 1세기 유대인들의 시편 78편 사용에 대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미쉬나에는 시편 78편 인용이 한 번 나오는데, Makot 3:14 A에서 시편

28) S. Moyise and M. J. J. Menken, *The Psalms in the New Testament*, 133-134.

29) Ibid., 134.

30) C. A. 에반스, 『신약 성경 연구를 위한 고대 문헌 개론』, 김주한·박정훈 역, (서울: 솔로몬, 2018), 446-451; C. A. Evans, *Ancient Texts for New Testament Studies: A Guide to the Background Literatur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1).

78:38을 인용한다. Makot은 미쉬나 4번째 세다림(Sedarim)인 『네지킨』(Neziqin)에 해당한다. Makot은 ‘매질’이라는 뜻으로, 주로 체벌을 집행하는 형법에 대해서 다룬다. 이 중 Makot 3:14 A는 신명기 28:58과 29:9를 대조한다.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사람과 자손들이 벌을 받게 될 경고의 내용과(신 28:58),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벌이 끝난다는 내용이다(신 29:9).³¹⁾ 그러면서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경우 벌에서 해방되는 근거로, ‘하나님은 긍휼이 충만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셨다’(he is full of compassion and forgave their iniquity)라는 시편 78:38의 인용을 제시한다. 미쉬나에서 벌에서 용서 받는 근거로 시편 78:38을 인용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시편 78편을 해석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점은 마태가 시편 78편을 사용한 것과 유사한 점이 있다. 마태도 시편 78편을 통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요한복음과 미쉬나의 시편 78편 사용과 마태복음 13:35에서 시편 78편 사용의 용례를 분석해 볼 때, 마태복음 1:7-8처럼 Ἀσάφ이라는 이름을 통해 시편 78편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은 없었다. 그래서 이를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당시에 ‘불신앙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시편 78편을 통해 사용한 용례들이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 이는 ‘마태가 1:7-8에서 Ἀσάφ이라는 이름을 기록하면서, 독자들이 시편 78편을 떠올릴 것을 기대했을 것’이라는 해석적 가능성을 열어 준다.

5. 결론

본고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마태가 Ἀσάφ을 기록한 의도를 살펴보았다. 첫째, 마태복음 1:7-8을 포함하는 ‘예수의 족보’(1:1-17)에 대한 중심 주제를 구조·문법·단어를 중심으로, 유대 문헌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했다. 이를 통

31) A. “And a reader reads: If you will not observe to do ... the Lord will have your stripes pronounced, and the stripes of your seed (Dt. 28:58ff.) (and he goes back to the beginning of the passage). And you will observe the words of this covenant (Dt. 29:9), and he finishes with, But he is full of compassion and forgave their iniquity (Ps. 78:38), and he goes back to the beginning of the passage.” Mishnah 본문은 다음 책 번역본을 참고했다. J. Neusner, *The Mishnah: A new translation*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8).

해 1:7-8을 포함하는 1:1-17이 말하는 중심 주제가 ‘언약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는 대조적으로 아브라함·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둘째, 마태복음 1:7-8의 Ἀσάφ 사용과 시편 78편의 연관성을, 마태복음 13:35; 요한복음 6:31; 7:38; 미쉬나 Makot 3:14 A에서 시편 78편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서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마태가 1:7-8에서 Ἀσάφ 기록을 통해 시편 78편과 연관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논증해 보았다.

즉, 1:7-8의 Ἀσάφ을 통한 시편 78편 사용은 마태복음 1:1-17 안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체적으로 ‘다윗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의 은혜(시편 78편과의 비교)’를 잘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본 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역개정』 마태복음 1:7-8에 대한 번역을 제안하고 글을 마치려 한다. 마태복음 1:7-8의 Ἀσάφ에 대한 번역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아사’로 번역하는 역본(개역개정, 우리말성경, NIV, NET, NLT)과, ‘아삽’으로 번역하는 역본(공동번역, 새번역, ESV)이 있다. 이 중 『개역개정』은 ‘아사’로 번역한다. 물론 이 인물이 ‘아사’를 가리키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번역도 틀린 번역은 아니다. 다만, 원문인 Ἀσάφ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다소 아쉬운 번역인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마태복음 1:7-8에서 원문의 의미를 살려 줄 두 가지 번역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기존 ‘아사’ 번역을 유지할 경우에, 각주를 통해 ‘헬, 아삽’을 첨부하는 것이다. 둘째, 번역 자체를 ‘아삽’으로 바꿀 경우에, 각주를 통해 ‘아사를 뜻함’을 붙여 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번역 방법은 마태복음 1:7-8의 Ἀσάφ에 담겨 있는 풍성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Keywords)

마태복음 1:7-8, 아삽, 아사, 시편 78편, 예수의 족보.

Matthew 1:7-8, Asaph, Asa, Psalms 78, The genealogy of Jesus.

(투고 일자: 2024년 7월 17일, 심사 일자: 2024년 8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4년 10월 11일)

<참고문헌>(References)

- 강대훈, 『마태복음 주석(상)』,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 강대훈, “제2성전기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 『신약연구』 14 (2015), 311-340.
- 박운만, “신약성서 헬라어의 현저성 표지들”, 『신약연구』 9 (2010), 309-335.
- 방정열, “시편 78편의 종말론적 전망: ‘거절과 선택’ 패턴”, 『한국개혁신학』 64 (2019), 10-42.
- 신인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해”, 『복음과 실천』 68 (2021), 131-156.
- 신현우, 『마태복음 1:1-13:52』, KECNT, 서울: 감은사, 2022.
- 에반스, C. A., 『신약 성경 연구를 위한 고대 문헌 개론』, 김주한·박정훈 역, 서울: 솔로몬, 2018.
- 이민규, “다윗의 자손에 관한 다양한 이해: 구약, 솔로몬의 시편, 쿰란, 마태복음 비교를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8 (2024), 75-107.
- Charlesworth, J. H.,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vol. 1,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3.
- Charlesworth, J. H.,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and the New Testament: Expansions of the “Old Testament” and Legends, Wisdom, and Philosophical Literature, Prayers, Psalms and Odes, Fragments of Lost Judeo-Hellenistic Works*, vol. 2,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5.
- Collins, J. J., *The Scepter and the Star: Messianism in Light of the Dead Sea Scrolls*, Grand Rapids: Eerdmans, 2010.
- Davies, W. D. and Allison, D. C.,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ICC, London;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4.
- Goulder, M. D., “Asaph’s History of Isrea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20 (1995), 71-81.
- Keener, C. S.,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09.
- Moyise, S. and Menken, M. J. J., *The Psalms in the New Testament*, London;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4.
- Nestle, E. and Nestle, E., eds., *Nestle-Aland: NTG Apparatus Criticus*, 28, revidierte Auflage,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 Neusner, J., *The Mishnah: A new translation*,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8.
- Nolland, J.,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05.

Osborne, G. R., *Matthew*, Zondervan Exegetical Commentary Series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2009.

Ray, D., “Who did What to Whom?: Reassessing God’s Activity in Psalm 78”, *Colloquium* 52 (2020), 65-84.

Wallace, D. B.,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Grand Rapids: Zondervan, 1996.

<Abstract>

Exegesis and Translation Proposal of Ἀσάφ in Matthew 1:7-8

Se Hyun Kang
(Chongshin University)

The text of Matthew 1:7-8 in the NTG²⁸ is viewed as having Ἀσάφ (Asaph) instead of Ἀσά (Asa). Then why did Matthew use Asaph? Scholarly thought is generall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First, the use of Asaph in 1:7-8 is understood in relation to the historical figure ‘Asaph’. Second, the use of Asaph in 1:7-8 is understood in connection with Matthew 13:35, where a psalm of Asaph, Psalm 78:2, is used. Among these, the second view seems more specific and plausible, however, the second view also has its limitations, as it does not provide a thorough exegesis of Matthew 1:7-8 through the Psalms of Asaph.

This paper will, therefore, comprehensively analyze the intent behind the mention of Asaph in 1:7-8 through two methods. The first method is to identify the central theme of the ‘Genealogy of Jesus’ (1:1-17), which includes Matthew 1:7-8. The text will be analyzed with a focus on its structure, grammar, and vocabulary. Subsequently, the theme of the descendants of Abraham and David will be examined by comparing how it appears in Jewish literature with Matthew 1:1-17. Through this, it will be revealed that the central theme of the genealogy is ultimately Jesus Christ, who fulfills the Abrahamic and Davidic covenants, by contrasting sinners who rebel against the covenant with the God who remains faithful.

How then is Asaph in 1:7-8 related to the theme of 1:1-17? There is scant information about Asaph, however, within the passage of 1:1-17, making it difficult to determine the intent behind the use of Asaph in those verses. For this reason, the second method is necessary, which involves analyzing the use of Asaph in Matthew 1:7-8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in relation to Psalm 78. In the first place, we can directly compare Matthew’s use of Asaph in 1:7-8 with the quotation of Psalm 78 by Asaph in 13:35. Next, we can indirectly compare the how Psalm 78 is used in both the New Testament and the Mishnah with how it is used in the Gospel of Matthew.

Through this, the article will argue that the purpose of recording Asaph (Ἀσάφ) in Matthew 1:7-8 is to emphasize Jesus Christ as the ultimate fulfillment of the covenant, contrasting sinners who betray the covenant to God's faithfulness to it, as seen in Psalm 78.